KOREAN BROADCASTING SYSTEM 2017 연차보고서

KBS 한국방송

(우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EL (02) 781-1000 www.kbs.co.kr

2017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17 연차보고서

KBS 한국방송

2017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17 연차보고서

목차

프롤로그

06 사장 발간사
08 2017년 방송지표 및 KBS 미션&비전
09 채널 현황
10 계열사 현황

KBS 콘텐츠

14 2017년 국제&국내상 수상작
16 뉴스&스포츠
18 TV 교양&다큐멘터리
20 TV 예능
22 TV 드라마
24 라디오
26 전국 네트워크
28 방송기술
30 디지털 미디어

수신료의 가치

34 KBS 월드 TV&라디오
36 국제협력
38 수신료
40 경영
42 시청자서비스
44 사회공헌활동

일반현황

48 이사회
49 집행기관
50 재무제표
52 인력 및 조직도
54 KBS 역사

KOREAN BROADCASTING SYSTEM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 KBS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KBS 사장 양승동입니다.

2017년 KBS는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파업을 거치면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과 재기의 씨앗을 뿌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부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인이자, 국가기간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하고 다큐멘터리 〈임진왜란 1592〉가 뉴욕 TV & 필름 페스티벌 금상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여러 KBS 프로그램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맨스 성장드라마 〈쌈, 마이웨이〉, 오피스 활극 코미디 〈김과장〉,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등 완성도 높은 드라마들이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에서 국민 드라마로 인정받았습니다. KBS 뉴스는 시청률 우위를 계속 유지하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경주 지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등에서 차질 없이 공적책무를 수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국민들이 내어주시는 귀한 수신료와 KBS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KBS는 새로운 KBS로 거듭나기 위해 취재와 제작의 자율성 보장, 공정한 평가와 결과적 정의 회복을 통해 공영방송 K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KBS의 주권은 시민과 시청자에게 있고 KBS의 모든 것은 시민과 시청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KBS 임직원 일동은 올 한해도 수신료의 가치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저널리즘 회복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모든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 사장 **양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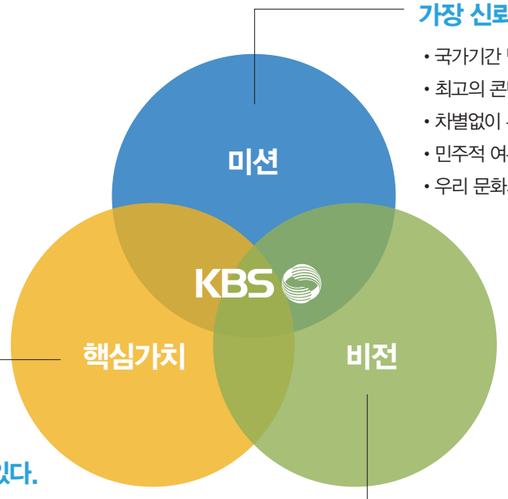
2017년 KBS 방송지표

희망 2017 KBS가 함께합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국가적 혼돈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정치 ·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국내외 환경은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상한 각오와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찬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KBS는 2017년 방송 지표를 '희망 2017, KBS가 함께 합니다'로 정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민의 방송,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공영 방송, 한국 사회의 화두를 던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KBS 미션&비전



가장 신뢰받는 창조적 미디어

-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 최고의 콘텐츠를 만든다.
- 차별없이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주적 여론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인다.

우리의 중심에는 시청자가 있다.

공정
공정성은
우리의 원칙이다.

혁신
끊임없이
혁신하고 창조한다.

열정
열정이
우리의 동력이다.

소통
One KBS,
우리의 소통이다.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킨다!

Beyond TV! Rock the World!

채널 현황

TV

- 1TV — 보도, 시사정보, 스포츠, 교양, 다큐멘터리 중심의 국가기간 채널
- 2TV — 건강한 가정 문화, 연예, 오락 채널

Radio

- KBS 1Radio — 뉴스와 시사정보 채널
- KBS 2Radio — 건강한 가족, 오락 채널
- KBS 3Radio —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채널
- KBS 한민족방송 — 남북화합과 교류의 채널
- KBS 1FM — 국내 유일 클래식/국악 전문채널
- KBS 2FM — 대중음악 전문 채널

지상파 DMB

- KBS★ — KBS 1TV에 기반한 한국인의 DMB 중심 채널
- KBS♫ — 지상파 방송사의 DMB 오디오 채널 중 유일한 음악전문 채널
- KBS♥ — KBS 2TV에 기반한 가족문화 DMB 채널
- KBS☘ — 양방향 데이터 채널

케이블 방송 KBS N 운영

- KBS drama — 드라마 전문 채널
- KBS joy — 엔터테인먼트 채널
- KBSN SPORTS —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채널
- KBS W — 삶을 리드하는 여성 전문 채널
- KBS Kids — 어린이 에듀테인먼트 채널
- KBSN LIFE — 인물, 역사, 다큐멘터리, 교양 정보 채널

국제방송

- KBS WORLD TV —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국제위성방송 채널
- KBS WORLD RADIO — 한국 유일 다국어 국제방송 전문 채널

디지털 플랫폼

- myK best friend — KB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간 VOD, 핫클립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 KBS 라디오 생방송, 다시듣기/보기, 팟캐스트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 KBS 24뉴스 — 다양한 소식을 24시간 빠르게 전하는 인터넷 전용 뉴스 채널

계열사 현황

KBS 미디어

설립일자 1991년 9월 1일
대표 권순우
대표전화 02-6939-8100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5층
주요사업 국내외 방송권 · 전송권 판매, 뉴미디어 플랫폼 개발 및 광고마케팅 사업, 콘텐츠 제작 및 투자사업, 공연 · 전시 등 문화사업, 교육사업

KBS 비즈니스

설립일자 1989년 4월 1일
대표 강선규
대표전화 02-2600-8600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 스포츠월드
주요사업 방송시설관리, 스포츠사업, 방송기술사업, 공연/문화사업, 방송차량서비스, 교육사업, 정보통신 · 전기 · 소방 · 기계설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등

KBS 아트비전

설립일자 1991년 10월 1일
대표 김대희
대표전화 02-6099-7799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9 KBS별관 7층
주요사업 방송미술(디자인, 장식, 의상, CG, 세트, 분장/미용), 문화사업, 전시사업, 임대사업. 테마파크사업

KBS 시큐리티

설립일자 2011년 3월 1일
대표 정인균
대표전화 02-6099-7111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본관 1층
주요사업 KBS시설경비, 행사장 질서유지, 원격교육 사업, 인력파견업, 건물관리업(주차, 위생, 시설), 기타 경비업법상 경비관련업

KBS N

설립일자 2001년 3월 8일
대표 이준용
대표전화 02-787-3333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3층
주요사업 KBS Drama, KBS N Sports, KBS Joy, KBS W, KBS Kids, KBS N Life 채널 공급, 광고 사업, 이벤트/공연/문화/캐릭터 사업, 프로그램 공동제작, KBS World 송출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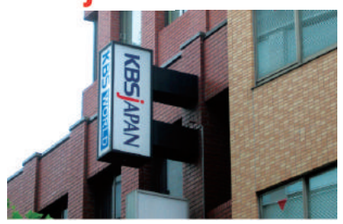
KBS 미디어텍

설립일자 2009년 9월 1일
대표 이석래
대표전화 02-6099-7312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4 KBS연구동 3동 303호
주요사업 KBS뉴스영상제작, KBS뉴스진행, 특수영상제작, 외주제작

KBS merica

설립일자 2004년 7월 15일
대표 서현철
대표전화 213-739-1111
주소 625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5,USA
주요사업 미주지역 KBS 콘텐츠와 채널 공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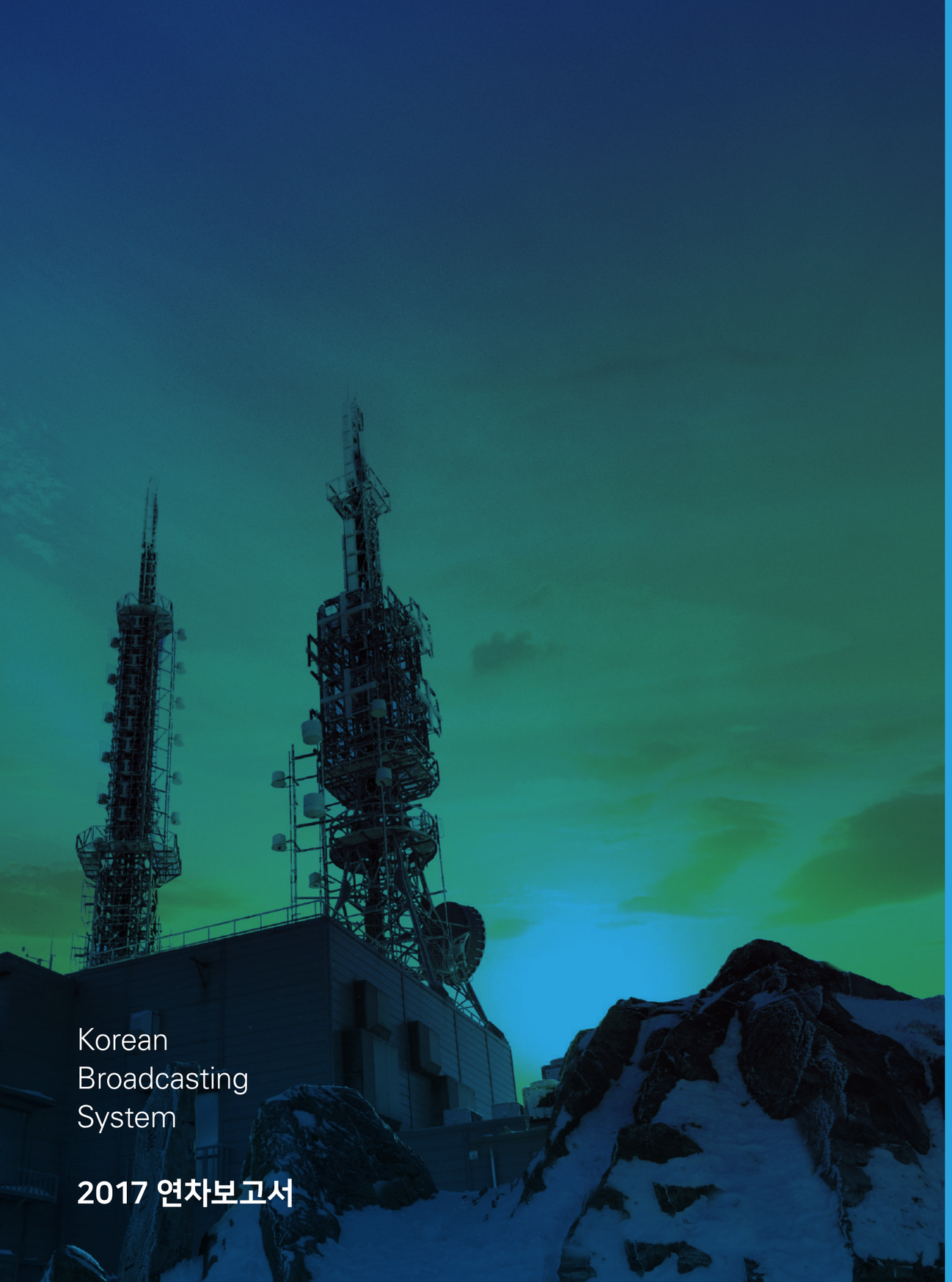
KBS JAPAN



설립일자 2005년 10월 19일
대표 권혁주
대표전화 03-3568-7792
주소 2F, 5F Akasaka Shuzan Bldg. 5-5-13,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주요사업 일본지역 KBS 콘텐츠와 채널 공급사업

몬스터유니온

설립일자 2016년 6월 9일
대표 박성혜
대표전화 02-303-760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20층
주요사업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예능) 제작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17 연차보고서

국민이 원하는
고품격 콘텐츠로
다가갑니다.

KBS는 공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채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7년 국제상 수상작

뉴욕 TV&FILM 페스티벌

- **다큐멘터리/정보(다큐드라마) 부문 금상**
  〈임진왜란 1592〉 5부작
- **기술/촬영 부문 금상**
  〈임진왜란 1592〉 5부작
- **다큐멘터리/정보(인류관심사) 부문 금상**
  〈KBS 다큐1–'앎'〉
- **뉴스/프로그램(탐사보도) 부문 금상**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살인기구가 된 가습기 살균제'〉
- **다큐멘터리/정보(공동체풍경) 부문 동상**
  〈KBS스페셜–'지옥고 청년의 방'〉

뉴욕 라디오 페스티벌

- **다큐멘터리/시사 부문 동상**
  한민족방송 라디오 〈중국 문화대혁명 50주년 특별기획〉 3부작 중 〈중국 문화대혁명 50년 그리고 북한은?〉
- **다큐멘터리/정보인간관계 부문 동상**
  3라디오 특별기획 〈마법의 20주 마음건강프로젝트〉

휴스턴 국제영화제

- **다큐멘터리 부문 심사위원특별상**
  〈KBS 다큐1–'앎'〉
- **TV시리즈 부문 심사위원특별상**
  〈태양의 후예〉
- **건강 부문 심사위원특별상**
  〈생로병사의 비밀–600회 특집 '뇌의 기적'〉 2부작
- **정보문화역사 부문 심사위원특별상**
  〈임진왜란 1592〉 5부작
- **TV시리즈 부문 대상(플래티넘)**
  〈구르미 그린 달빛〉
- **연예오락 부문 금상**
  〈노래싸움 승부〉
- **다큐멘터리 부문 금상**
  〈KBS스페셜–'지옥고 청년의 방'〉
- **탐사저널리즘 부문 금상**
  〈KBS스페셜–'나는 살인자입니다 진범의 고백'〉
- **TV영화 부문 은상**
  〈드라마스페셜–'동정 없는 세상'〉
- **리얼리티 부문 동상**
  〈1박2일–'대왕세종 특집 나랏말싸미'〉 3부작

서울 드라마 어워즈

- **단편 부문 우수상**
  〈드라마스페셜–'빨간 선생님'〉
- **한류드라마 부문 최우수상**
  〈구르미 그린 달빛〉

ABU상

-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
  〈KBS스페셜–'앎' 2부–서진아 엄마는〉
- **라디오 인터렉티브 부문 장려상**
  제3회 한국어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한국어 세계와 꿈꾸다〉

아시안 TV어워즈

- **자연사 야생동물 부문 최우수상**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의 타임캡슐–1편 '왕의 거처 창덕궁'〉
- **드라마시리즈 부문 최우수상**
  〈구르미 그린 달빛〉
- **올해의 지상파방송사 부문 장려상**
  KBS

2017년 국내상 수상작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 **대상** 〈태양의 후예〉
- **지역발전 부문 우수상**
  제주방송총국 신년기획 UHD 다큐멘터리 〈먼바당 거믄땅〉 2부작

제 44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대상

- **대상** 〈임진왜란 1592〉 5부작
- **지역뉴스보도 부문 작품상**
  전주방송총국 〈두 장짜리 보고서가 밝혀낸 한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 **생활정보라디오 부문 작품상**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고령화 사회, 청년들의 출구는?'〉
- **문화예술 부문 작품상**
  감성과학프로젝트 〈환생〉 2부작
- **장편드라마 부문 작품상**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중단편드라마 부문 작품상**
  〈김과장〉

2017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국무총리표창**
  〈KBS 스페셜–'앎'〉 3부작

제19회 양성평등미디어상

- **방송 부문 최우수상**
  〈명견만리–'여성을 춤추게 하라!'〉

제29회 한국PD대상

- **TV 부문 실험정신상**
  감성과학프로젝트 〈환생〉 2부작
- **지역정규 부문 작품상**
  창원방송총국 〈감시자들–'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프로젝트'〉
- **드라마 부문 작품상**
  〈태양의 후예〉
- **음악오락 부문 작품상**
  〈박명수의 라디오쇼–'게릴라 이벤트 혼밥원정대'〉

제53회 백상예술대상

- **교양 부문 TV작품상**
  〈KBS스페셜–'앎'〉 3부작
- **교양 부문 TV작품상**
  〈임진왜란 1592〉 5부작
- **드라마 부문 TV작품상**
  〈구르미 그린 달빛〉

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KBS 스페셜–8 · 15 기획 '전쟁과 여성'〉 3부작

제21회 삼성언론상

- **방송 부문 어젠다상**
  〈시사기획 창–'2016 정치개혁'〉

방송문화진흥회 지역프로그램대상

- **대상**
  부산방송총국 유네스코 등재 신청 특집 〈조선통신사〉 2부작
- **동상**
  원주방송국 〈청춘시장–원주의 행복한 시장만들기〉

제9회 한국기독언론대상

- **대상**
  〈KBS 스페셜–'앎'〉 3부작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 **대상**
  〈다큐공감–'3천배, 나를 찾는 수행'〉
- **방송 부문 우수상**
  UHD 유네스코세계유산 〈자연의 타임캡슐–4편 '돌부처의 숲, 경주 남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1월
- 〈시사기획 창–신년 기획 '마지막 진화'〉
- 춘천방송총국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눈, 길–청년 김마그너스의 도전〉

2월
- 〈KBS 스페셜–신년기획 '행복한 국가를 만든 리더십'〉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창원방송총국 개국 75주년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꿈꾸는 아이들, 희망 로그인〉

3월
- 〈한국사기〉 10부작
- 부산방송총국 유네스코 등재 신청 특집 〈조선통신사〉 2부작

4월
- UHD 유네스코세계유산 〈자연의 타임캡슐〉 8부작

5월
- 〈명견만리–'농사의 재발견'〉
- 광주방송총국 5 · 18 기념재단 공동기획 〈그날, 5 · 27〉

6월
- 〈KBS 스페셜–'코란, 1400년의 전쟁'〉 2부작
- 전주방송총국 〈시사기획 날–최초 보고 '먼지 전북'의 비밀〉

7월
- 〈KBS 스페셜–'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

8월
- 〈KBS 스페셜–'8.15 기획 전쟁과 여성'〉 3부작
- 청주방송총국 특집 다큐 〈이상설의 길을 걷다〉

9월
- UHD 다큐멘터리 〈순례〉 4부작
- 대전방송총국 특별기획 〈역간척〉 2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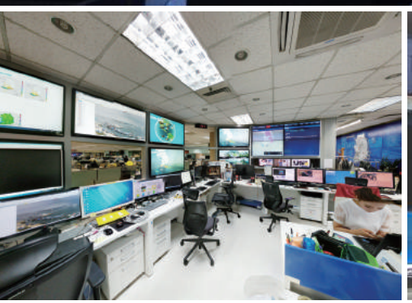
10월
- 강릉방송국 〈바닷속의 검은 황금, 다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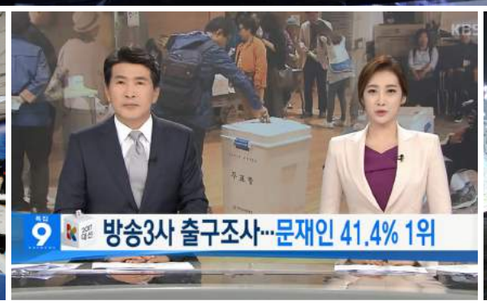
11월
- 시화호 30년 특별기획 〈물의 제국〉 2부작

12월
- 한민족방송, 1라디오 〈시인의 100년, 윤동주를 노래하다〉

뉴스&스포츠

KBS 뉴스는 2017년에도 시청률 1위를 유지했습니다. 공정하고 수준 높은 대통령 선거방송을 선보인 것은 물론 신속한 뉴스특보 체제를 구축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뉴스9〉 시청률 1위

KBS 간판뉴스인 〈뉴스9〉의 2017년 연간 평균 시청률은 14.4%(수도권 기준/닐슨코리아)였습니다. 이는 다른 방송사 메인뉴스(MBC 뉴스데스크 5.2%, SBS 뉴스8 6.4%, JTBC 뉴스룸 6.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시청률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KBS 〈뉴스9〉의 연간 평균 시청률은 최근 5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6.7%였던 시청률이 2017년에는 2.3%p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시사저널과 시사인, 미래미디어연구소 등의 조사에서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신속한 뉴스특보… 논쟁적 이슈 대처 미흡

대통령 탄핵과 북한 핵실험,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등 굵직한 이슈 발생 시 KBS는 뉴스특보를 신속하게 방송했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30차례에 걸친 뉴스특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드러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KBS 뉴스는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등 논쟁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대통령 선거 방송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서 KBS는 역대 최고의 출구조사(지상파 3사 공동)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후보별 득표 순위는 물론 득표율도 0.8% 포인트 내에서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버추얼 스튜디오와 3원 연결한 서울 광화문 세트에는 국내 개표 방송 사상 처음으로 스파이더캠을 운용해, 웅장한 실사 화면에 증강현실을 구현해 냈습니다. 또한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은 스탠딩 방식과 주제별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룰 등을 도입해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토론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률 26.4%, 시청 점유율 43%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사 단독으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성사시킨 곳은 KBS가 유일했습니다.

재난방송 대응 체계 향상

경주 지진 이후 급증한 긴급 지진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의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뉴스특보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개선했습니다. 기상청과 연계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속보 자막과 관련 기사가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지진 자동 자막 표출 시스템을 2017년 6월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요 방송사 대상 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지도 점검'에서 KBS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이슈에 대해 수시로 기획 아이템을 발굴해 심층 분석보도를 이어갔고, 국내 최초의 재난 안전 전문 프로그램인 〈KBS 재난방송센터〉를 편성해 재난 대비 요령과 생활 안전 등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의 심층성 · 현장성 강화

KBS는 보도의 심층성 강화를 목표로 삼고, 뉴스 혁신에 주력했습니다. 〈뉴스9〉의 '이슈&뉴스' 코너 등을 통해 그날의 주요 이슈를 블록화해 다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현장 중계차와 MNG 연결을 확대해 뉴스의 현장성을 강화했고,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해 뉴스 전달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유통 확대

다양한 이슈를 디지털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전용 라이브 장비를 마련해 현장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KBS 대선 후보 토론회는 다중 플랫폼 누적 접속자 수가 100만 명에 달했고, 대선 개표 방송 역시 4원 디지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UV)도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인턴 제도를 활용해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했고, 구글 뉴스랩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학생들과 함께 대통령 후보 공약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만들기'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뿐만 아니라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과의 제휴를 통해 라이브 플랫폼을 확대했습니다.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글로벌 뉴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미 · 중 패권 경쟁, 미국 우선주의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 등 주요 국제뉴스를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과 〈뉴스9〉의 '이슈&뉴스'와 '앵커&리포트' 코너를 통해 심층 분석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이라크 바그다드, 북 · 중 접경지역 관련 보도에서 스마트폰과 MNG 등 1인 기기를 활용해 현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프랑스 대선' 등의 현안을 기존 외신의 시각이 아닌 KBS만의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방송 성공적 준비

88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대표 채널'인 KBS 스포츠의 방송 제작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성공적 올림픽 개최 캠페인을 통해 공영방송의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협찬 유치로 인한 수입도 목표 금액(95억 원)을 초과 달성(95.3억 원)했습니다.

TV 교양&다큐멘터리

KBS는 고품격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를 반영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의제를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품격 킬러콘텐츠 제작으로 공영방송 역할 극대화

2017년 교양은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경쟁력 있는 공익 콘텐츠를 제작 했습니다. 2017년 초 파일럿으로 기획했던 〈속 보이는 TV 人사이드〉와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서가식당〉 등을 정규프로그램으로 안착시켰고 〈자랑방 손님〉 등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송이 결합된 새로운 포맷의 파일럿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재미와 지식이 어우러진 과학정보 교양 프로그램 〈감성과학 다큐멘터리 환생〉을 기획 · 개발했고, 〈KBS 스페셜–아시아는 스무살〉을 통해 아시아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공유된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장수 프로그램의 혁신을 통한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포맷 개발뿐만 아니라 대표적 장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업그레이드시켜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침마당〉은 스마트폰 방송 참여 앱 '티벗'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적용해 시청자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월요토크쇼–베테랑', '전국이야기 대회 – 도전! 꿈의 무대' 등 요일별 코너들을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시청자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6시 내고향〉 역시 '로미나 고미호의 한국속으로', '청년회장이 간다' 등의 코너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 혁신을 지향했습니다. 〈걸어서 세계속으로〉는 UHD 제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고품격 방송을 선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양 프로그램 전용 디지털 플랫폼인 '알잼 TV'를 페이스북에 구축함으로써 차후 교양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교육 기획

'2016년 교육 혁신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대한민국 교육 혁신 케이스를 취재하고 교육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KBS 어젠다 기획 〈4차 산업혁명과 교육〉 8부작을 제작했습니다. '1부–요동치는 세계교육, 학생이 주도하게 하라', '2부–미래인재의 조건, 경쟁에서 협력으로', '3부–21세기 아이들, 학교를 깨우다', '4부–선생님이 보낸 SOS, 100통의 편지', '5부–세상에 없던 대학', '6부–교수님은 변신 중', '7부–배움은 놀이다, 공부 왜 하니?', '8부–배움은 놀이다, 학교 왜 가니?' 등 1년간 총 8편의 시리즈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새로운 인재에 맞는 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새로운 수업방법의 혁신을 다룬 특집다큐 〈대한민국 공학의 미래를 묻다〉 제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이공계 대학의 수업 혁신을 진단했습니다.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보는 '즐거움과 감동'을 시청자에게 선물

종교적 순례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메시지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UHD 영상으로 구현한 〈순례〉 4부작, 자연과 생태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UHD 인문자연 다큐멘터리 〈자연의 타임캡슐〉 8부작,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깨달음을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 〈2017 삶〉 2부작 등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공영방송의 위상과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창조적 혁신을 통한 프로그램의 진화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중일 3국의 여성들이 중일 전쟁,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의 참사를 증언하고 평화를 호소력 있게 이야기한 한국 방송 최초의 여성 전쟁사 구술 다큐멘터리 〈전쟁과 여성〉 3부작,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통일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드라마 기법을 도입해 고찰한 팩추얼 다큐드라마 〈한국사기〉 10부작은 다큐멘터리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을 스핀오프(spin–off)한 프로그램인 〈최태성–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12부작은 국내 최초의 로드버디 형식으로 역사 프로그램의 새로운 포맷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창조적 진화를 도모했습니다.

사회적 의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 역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사회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987년과 2017년 민주주의의 성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든 촛불의 힘 때문에 가능했음을 심층적으로 보여준 〈시민의 탄생〉 2부작, 〈KBS 스페셜–블랙리스트〉, 〈탄핵〉, 〈3년 세월의 시간〉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검찰과 권력〉, 〈재벌과 비자금〉 등 사회 감시기능을 강화해 '사회를 보는 창'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고 〈오래된 기억, 6 · 15 남북정상회담〉, 〈북핵 위기, 기로에 선 한반도〉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국가를 위한 제언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연과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새로운 포맷의 〈축적의 시간〉 2부작, 〈축적의 길〉 2부작은 한국 산업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올바른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행복한 국가를 위한 리더십〉 2부작, 정치적 격동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성찰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건〉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시의적절하게 제언했습니다. 또한 〈코란, 1400년의 전쟁〉 2부작을 통해 코란으로 상징되는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TV 예능

2017년 KBS 예능은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핵심 프로그램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다양한 포맷과 새로운 콘셉트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함으로써 폭넓은 시청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규 예능 프로그램 개발

추석 파일럿으로 방송된 〈1%의 우정〉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리얼 관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각박한 사회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통해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미와 재미를 모두 잡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건반 위의 하이에나〉는 대중들이 궁금해 하는 뮤지션들의 음원작업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음원메이킹 쇼큐멘터리'입니다. 차별화된 포맷의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 기존 유명 뮤지션들과 신예 뮤지션들이 함께 신곡을 발표하며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줘〉(추석파일럿 2부작)는 MC가 해외를 여행하며 무작정 현지인을 섭외한 뒤 하룻밤을 얻어 자면서 '풍광'이 아닌 '사람'을 보는 새로운 콘셉트의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10.9%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존 핵심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력 유지

〈해피선데이-1박2일,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명실공히 주말 예능 최강자로서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유지하며 KBS 예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후의 명곡〉은 2017년도에 300회 특집 3부작 '불후의 MC', '불후의 가수', '불후의 전설' 등을 통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전세대의 고른 관심을 받았습니다. 〈불후의 명곡〉은 2017년 하반기 토요 예능 프로그램 1위를 꾸준히 기록하며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개그콘서트〉는 경쟁 채널의 대형 예능 프로그램, 신규 편성된 케이블 드라마와 새로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또한, 탄핵 및 대선 정국에 의해 화제성이 높아진 뉴스 · 탐사 프로그램의 약진 속에서 치열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SBS의 코미디 간판이었던 〈웃찾사〉가 폐지되는 등 코미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하향세 또한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그콘서트〉는 한 해 동안 50여 개의 신규 코너를 개발하여 방송했고 〈900회 레전드 특집〉을 3주간 특별 편성해 대한민국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가요무대〉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월화드라마를 편성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월요일 밤 10시에 지난 30여 년 동안 10%대 시청률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고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BS만의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 반향

2016년 웹 드라마 〈마음의 소리〉 시즌1로 가능성을 발견한 KBS 예능은 2017년 〈고백부부〉로 두 번째 예능 드라마를 시도해 또 한 번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고백부부〉는 예능 드라마라는 선입견과 적은 제작비, 금 · 토요일 밤 11시라는 불리한 편성시간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 3주 후부터 마지막 방송까지 연속 화제성 지수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방송은 2017년 방영된 드라마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아 2017년 최고의 드라마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콘텐츠 영향력지수 1위를 기록하며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경쟁력있는 콘텐츠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백부부〉의 2049시청률은 최고 6.5%를 기록(*동 기간 KBS 모든 프로그램 중 2위, 1위는 주말드라마)했는데, 이는 광고 주요 타겟층인 20~49세대들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젊은 세대에 대한 공사의 경쟁력을 창출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연출은 물론이고 드라마의 '흥행 막장 3요소(출생의 비밀, 불륜, 복수)'와 높은 출연료를 바탕으로 한 화려한 캐스팅 없이 오직 넓고 깊은 공감요소와 연출력만으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부끄러운 포기보다 당당한 실패를 경험한 아이돌에게 재기의 기회와 발판을 만들어준 프로그램으로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며 KBS만의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TV 드라마

2017년 KBS 드라마는 단막극부터 미니시리즈, 금토드라마, 연작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만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공영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적인 기획, 높은 완성도를 통해 한류 핵심 콘텐츠로서의 품위를 높였습니다.

압도적 화제성 – 미니시리즈

〈태양의 후예〉와 같은 소위 대박 드라마가 출현하진 않았으나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 한 해였습니다. 로맨스 성장 드라마 〈쌈, 마이웨이〉, 오피스 활극 코미디 〈김과장〉, 법정 추리 수사극 〈마녀의 법정〉 등이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월화드라마로는 퓨전사극 〈화랑〉, 새로운 형식의 스릴러 〈완벽한 아내〉, 8부작 드라마 〈란제리 소녀시대〉, 재기발랄 로맨틱 코미디 〈저글러스〉 등이, 수목드라마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휴먼드라마 〈오 마이 금비〉, 코믹스릴러 〈추리의 여왕〉, 정통사극 〈7일의 왕비〉, 묵직한 사회고발 〈매드독〉, 판타지 멜로 〈흑기사〉 등 완성도 높은 드라마들이 대거 포진해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과감한 도전 – 금토드라마

다시 한 번 금 · 토요일에 편성된 드라마 〈최강 배달꾼〉은 참신하면서도 안정적인 작품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열혈 청춘들의 이야기 〈최강 배달꾼〉은 전통의 월화드라마와 수목드라마뿐 아니라 새로운 시간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해 준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KBS 드라마의 요람 – 단막극과 연작드라마

신인 연출자와 작가의 산실인 단막극 〈드라마스페셜〉은 2017년 극본 공모 당선작을 포함한 10편의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재와 참신한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4부작 드라마 〈맨몸의 소방관〉, 2부작 드라마 〈개인주의자 지영씨〉 등은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 새로운 포맷의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확실한 흥행보증수표 – 주말연속극

첨예한 사회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낸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은 마의 시청률 40%를 거뜬히 넘기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실 공감 100%의 스토리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짚어 보았던 〈아버지가 이상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은 KBS 주말연속극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간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꾸준한 활약 – 일일연속극

1TV 저녁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미워도 사랑해〉는 세대 간의 화합과 이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2TV 저녁 일일연속극 〈다시, 첫사랑〉, 〈이름 없는 여자〉, 〈내 남자의 비밀〉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젊은 남녀의 사랑과 갈등을 밀도 있게 그려 냈습니다. 반세기 전의 향수를 담아 감수성을 자극하는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그 여자의 바다〉, 〈꽃피어라 달순아〉 등도 꾸준히 사랑받았습니다. 세 가지 색 일일연속극은 시청자들의 일상을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성과를 낸 드라마들입니다.

라디오

KBS 라디오는 품격 있는 교양 프로그램과 대중성을 살린 재미있고 유익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해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 행복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북방 · 재외동포를 위한 방송서비스 등 공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 90년을 맞아 KBS 라디오 전 채널이 참여한 특별기획 〈라디오 90년 미래 100년〉을 통해 방송전파 90년을 돌아보고 미래 라디오의 책무를 모색했습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1라디오

종합 편성 채널 1라디오는 공익적 교양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국가기간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을 제작했고 산불, 가뭄,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긴급기획 등을 통해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성공예감 경제콘서트〉 및 〈저출산 기획–아이가 희망이다〉를 방송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모바일 세대를 겨냥한 드라마 〈와이파이 초한지〉, 광복절 특집 〈헤이그로 간 밀사들〉, 〈이주향의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대중음악 채널 2라디오 (해피FM)

중장년 세대를 위한 대중음악 중심 종합 편성 채널인 2라디오 해피FM은 교양과 오락이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 그대와 최수종입니다〉, 〈박중훈의 라디오스타〉 등 톱스타 급 진행자를 영입해 채널 인지도를 높였고, 〈경남도민체전 개막식 공개방송–당신을 응원합니다〉, 〈매일 그대와 최수종입니다–가을음악회〉 등 다양한 공개방송을 통해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공영 라디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1FM (클래식FM)

1FM은 국내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로서 클래식 음악과 국악 보급에 앞장섰으며 청취자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개국 38주년 특집–즐거운 나의 선택, KBS 클래식FM〉, 〈여름음악학교–신나는 음악, 품나는 음악〉 등을 통해 청취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제150회 FM 콘서트홀–봄, 또 다른 시작〉, 〈제151회 FM 콘서트홀–노르웨이를 거닐다〉, 〈제70회 FM 국악무대–유춘오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은 초청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방송 15주년 기념 음반'을 출반해 청취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재미있고 젊은 예능 음악 채널 2FM (쿨FM)

2FM은 2017년 재미있고 젊은 예능 음악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레이나의 굿모닝팝스〉, 〈이수지의 가요광장〉, 〈온주완의 뮤직쇼〉,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등 젊은 DJ 라인업을 구축했고 〈라디오 90년 미래 100년–KBS 라디오 빅 콘서트〉, 〈음악앨범 30년–이현우의 음악앨범 10년 특집 콘서트〉 등 다양한 공개방송을 통해 애청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내 유일의 라디오 복지 채널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3라디오는 450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신한 기획을 선보였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연중기획 〈KBS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대한민국 1교시–다름 별을 구하라〉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사회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해설가의 야구중계방송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오늘의 신문〉, 〈연속낭독〉, 〈소설극장〉, 〈낭독으로 만나는 세상〉 등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강화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젝트〉, 〈2017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 장애극복 및 자활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전문 · 한민족 네트워크 한민족방송

한민족방송은 북한 · 통일 전문 및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민족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콩'을 개선하였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시장경제를 배웁시다〉, 〈전통으로 소리길로〉 등 정규프로그램 및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주 80주년 특집 콘서트와 다큐멘터리〉, 〈제19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 특집 다큐 〈시인의 100년 윤동주에게 묻다〉, 글로벌 문화다큐 〈샤먼의 노래〉, 휴먼 다큐 〈한민족 리포트〉 등 다양한 기획 콘텐츠를 통해 북한 전문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 및 한민족 동질성 고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

공영방송 KBS는 지역 밀착형 고품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 부산총국 】

지역 곳곳의 숨겨진 역사문화 유산을 현재 시점의 가치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해 지역의 역사자산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재발굴해 낸 〈부네스코 위원회〉는 지역 시청자뿐만 아니라 유관단체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잊힌 평화의 역사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기록문화 등재 신청에 맞춰 2부작 고품격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방송문화진흥회 지역방송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 창원총국 】

어르신들의 인생경험과 삶의 지혜를 기록하는 〈우문현답〉과 경남의 시사현안을 심층 분석하는 〈감시자들〉 등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제작 · 방송하여 경남지역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도 부문 또한, '지역을 선도하는 KBS 창원방송'을 운영지표로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심층보도와 대안제시를 통해 경남지역 일자리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대구총국 】

우리 민족의 활쏘기 DNA를 조명한 〈설 특집–다큐멘터리 활〉, 초원의 길을 따라 황금문화가 신라로 전파되어 찬란한 꽃을 피우기까지 장대한 여정을 담아낸 〈KBS 특별기획–초원의 제국〉 2부작 등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해 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주 지진 1년을 맞아 선진국의 지진 대비 요령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진 대비에 관해 점검하는 〈시사기획 창–10초 전(戰)〉을 전국으로 방송함으로써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구총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 〈이야기 콘서트 休〉를 통해 지역 시청자들에게 문화 휴식처를 제공했습니다.

【 광주총국 】

신년 다큐멘터리 〈3일간의 여행, 마법의 공간 칠석〉, 개국 75주년 특별기획 〈숲에서 길을 찾다〉, 특별기획 〈80년만의 귀향, 앵보한창기〉를 통해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다각적으로 재조명하였으며, 특별기획 〈창의도시로 가는 길〉, 연중기획 〈남도의 브랜드, 세계로 향하다〉, 특집다큐 〈마른 생선의 역사〉, 특별기획 〈4차 산업혁명, 도시의 미래를 꿈꾸다〉를 통해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전주총국 】

전주총국은 지역 최초 순수창극뮤지컬 '조선미인별전'을 제작하며 독보적인 전통문화콘텐츠 제작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 전국 방송중인 〈국악한마당〉을 고품격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을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포맷을 개발하고자 〈콘서트 나빌레라〉, 〈별미책방〉 등 시즌제 정규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도 부문에서는 '두 장짜리 보고서가 밝혀낸 한 여고생의 죽음', 최초 보고 '먼지 전북'의 비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 취재로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 대전총국 】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과학프로그램 〈길에서 만난 과학〉, 〈사과콘 4.0시대 과학콘서트〉를 제작해 과학을 대중화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집중 조명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인 특집다큐 〈천년의 풍경 천년의 위로–마곡사〉, 〈백제 무령왕〉을 통해 KBS 우수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습니다.

【 청주총국 】

특집다큐 〈서거 100주년 특집–이상설의 길을 걷다〉, 여름특집 단독보도 'AI 달걀 유통 방역 구멍', 수해 특보 및 연속보도 '22년 만의 물폭탄… 피해 속출' 등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 및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보도부문 우수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수해 및 제천 화재 참사 보도를 계기로 재난특보 및 연속보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또,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중계와 〈괴산군수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춘천총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00 특집 〈영웅〉, 〈3피리어드 평창〉 등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전국 방송 프로그램인 〈올댓뮤직〉은 '춘천 가족음악축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한 인디스땅스 사업' 등 영역을 확장하여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보도특집 '신 해양실크로드 크루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강원도의 향후 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 제주총국 】

UHD 다큐멘터리 〈화산섬 오름꽃〉을 제작하여 청정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보전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렸으며 개국 67주년 특집 렉처멘터리 〈도시희망 프로젝트〉 3부작, 보도특집 〈시사기획 창 – 환상의 섬, 그늘진 민낯〉을 통해 급변하는 제주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4 · 3 희생자 추념 음악회', 'KBS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KBS 제주 여름음악회',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낭만제주 자연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방송기술

광역권과 강원권까지 확대된 UHD 방송서비스를 위해 제작 · 송신 인프라를 구축했고 미래 방송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으로 선도적인 미디어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대형 국가 행사 중계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통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 기술 협력,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강화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UHD 방송 인프라 구축 및 신규 서비스 추진

2017년 방송기술 분야에서는 UHD 본방송 서비스를 위한 제작 · 송출 · 송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5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에 광역권과 강원권으로 UHD 방송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권, 강원권에 총 11개소의 UHD 송신시설을 구축하고 UHD 주조정실, 부조정실, 편집시설 등 UHD 제작 · 송출시설과 UHD 중형 TV 중계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UHD 방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UHD ESG, UHD 모바일 등 신규서비스를 추진하여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HD 재난방송과 동일한 UHD 재난자막 서비스를 구현하여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의 법적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책무 이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미래 방송서비스를 위한 방송기술 R&D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자 제작, 플랫폼, 송 · 수신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IP기반 제작기술 연구, 지상파방송과 융합된 인터넷 기반 플랫폼 서비스, 동일채널 송 · 수신 망 설계기술 개발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제작워크플로우 선진화와 미래 방송서비스 기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MR(Mixed Reality) 기술을 적용한 고품질 그래픽 기술연구, 시각화에 초점을 맞춘 인포그래픽 시스템 개발, 콘텐츠 유통정보 시스템 개발 등 차세대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형 국가 행사 중계 및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박 前대통령 탄핵, 세월호 인양,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대형 국가 행사의 중계 제작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헬기, 중계차 등 가용 가능한 리소스를 최대한 투입하였으며, 특히 대선 개표 방송 시에는 광화문 특설무대에 AR시스템이 적용된 스파이더 캠을 설치하여 차별화된 선거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뮤직뱅크 인 싱가포르', '뮤직뱅크 인 자카르타', 'K-POP 월드 페스티벌 인 창원' 등 국내외 K-POP 공연 제작을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밖에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을 위한 KBS 방송센터 시스템 설계, 방송 시스템 사전 설치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권역 확대 및 시설 운용 효율화 추진

KBS 1라디오 표준FM 방송권역 확대를 위해 FM 중계시설 3개소를 신설하여 청취자 수신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한 14개 중파 송신시설의 폐소를 추진하여 송신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및 국제 협력 강화

과테말라, 스리랑카, 우간다, 도미니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방송 기술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ABU 디지털방송심포지움'에서 KBS의 선진기술을 발표하여 대외홍보와 기술한류를 이끌었습니다. NHK 등 해외 방송 기관과의 꾸준한 기술협력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교류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ATSC 3.0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실시, 방송기술 분야 공적책무 수행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제54회 ABU 총회에서 '2017년 ABU 방송기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강화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방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의 제공을 위해 재난재해용 방송장비와 경보자막 송출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가능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사용자 중심의 가치 도출 및 서비스 아이덴티티 수립으로 KBS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일환으로 KBS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유입 통로인 NOON을 론칭하였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관심사별 카테고리 형식의 새로운 버티컬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의 컬래버레이션, 온-오프라인 믹스 이벤트를 통한 실험적 포맷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서비스 유통 다각화로 디지털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 추진

공영방송의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사 플랫폼 및 경쟁사 서비스 분석을 통해 서비스별 방향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my K',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콩', 뉴스 · 재난 앱 등 전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UI · UX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결, 예측, 확장, 몰입, 의도, 뚜렷함' 등 6대 키워드를 도출하여 PC 웹, 모바일 웹, 모바일 앱 채널간의 아이덴티티 및 디자인 가이드를 수립해 이에 따라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일관되고 통합된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모바일 NOON 서비스 론칭

스마트폰의 첫 시작화면인 잠금화면(Lock Screen)에서부터 사용자에게 KBS 콘텐츠를 추천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NOON 서비스를 2017년 5월 론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한 앱 다운로드 및 순 방문자 수의 뚜렷한 증가가 없는 등의 부진한 성과로 2018년 4월 해당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신규 서비스 개발시, 보다 정확한 사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카테고리 킬러 형식의 버티컬 서비스 확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관심사별 카테고리 킬러 형식의 새로운 버티컬 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여행, 건강, 역사 버티컬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기존 콘텐츠와 신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컬래버레이션과 온-오프라인 믹스 이벤트를 통한 실험적 포맷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했고 사업 유통 다각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메타데이터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디맨드 디지털 오디오 프로그램 '팟캐스트' 확대

지상파 라디오 7개 채널에서 다루기 어려운 세부 청취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상파 편성을 염두에 둔 실험적 포맷의 온디맨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사내 팟캐스트 제안 공모를 통해 총 12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외부 팟캐스트 플랫폼인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의 콘텐츠 제휴협약을 통해 KBS가 제작하는 고품질 오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을 연재하였습니다. 낭독 프로그램 〈오디오 진정제〉, 상담 프로그램 〈힐러들의 수다〉, 음악 토크쇼 〈음악이 없는 뮤직쇼〉, 여행 프로그램 〈여행상상〉, 오디오 드라마 〈마담셜록〉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인큐베이팅 되었습니다.

최신 트렌드 반영한 뉴스 앱 서비스

'KBS 뉴스 앱'을 네이티브 기반의 모바일 전용 앱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KBS 뉴스 앱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KBS 뉴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 · 구축하여 대량의 사용자 유입 시에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최신의 트렌드와 이용행태를 반영한 UI · UX 개편으로 사용자 경험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OD 콘텐츠 서비스 및 온라인 전용 영상 생중계 확대

KBS의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조 왕건〉, 〈대조영〉, 〈직장의 신〉 등 과거 인기 프로그램의 VOD 콘텐츠 서비스를 5만 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큐레이션, 개인화 추천, UI · UX 개선, 프리미엄 VOD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연장전을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여 지상파 편성 시간을 보완하였으며 지역 축제, 대학 농구, 모델 페스티벌, 딥젠고 바둑 등 온라인 전용 생중계를 2016년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17 연차보고서

KBS는
시청자가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를 가치 있게 실현하기 위해,
KBS는 다양한 공적 책무 수행에 매진하고
공익성을 높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KBS 월드 TV&라디오

KBS 월드는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사의 콘텐츠를 수출하고 다양한 온 · 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쳐 글로벌 채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채널 및 프로그램 수출 · 수익 확대를 위한 노력

2017년 월드사업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채널 사업의 위축이라는 산업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17개국 6,520만 가구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였습니다. 해외 신시장지역에서의 공사 저작권료 수입은 2016년 65.7억 대비 19.8% 증가한 78.7억을 기록하였으며, 홍콩의 경우는 역대 최고 수출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신시장지역의 OTT 플랫폼 수출 매출액 확대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PCCW 및 Iflix 등 주요 글로벌 전송권사와의 연간계약을 통해 총 1,000만 불 이상의 수출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터키 〈비밀〉, 인도 〈내 딸 서영이〉, 몽골 〈장밋빛 인생〉, 태국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포맷 수출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KBS World 2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월드사업부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한민족 중심채널 'KBS World 24'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채널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위성과 인터넷 송출을 병행하여 글로벌 전송망을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KBS World 24 전용 주조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미주 방송권역은 시카고, LA에 이어 애틀랜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 사업추진을 기반으로 2018년 국고지원금 9.7억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BS World 채널 경쟁력 강화

KBS World 채널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에는 말레이시아의 최대 SO인 Astro와 함께 KBS 시상식을 연계한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KBS World 채널 개국 14주년을 맞이해 실시한 축하메시지 이벤트와 서포터즈 모집 이벤트는 시청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이 더해져 채널의 영향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인지도 향상은 글로벌 광고 수입 확대로 이어져, 2017년 글로벌 광고 수입 및 유튜브 광고 수입 각각 20억, 16억을 기록하며 공사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

모바일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KBS World 채널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홍보를 지속해왔으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및 SNS 이벤트 등으로 해외 시청자와의 소통에 힘썼습니다. 2017년에는 웨이보를 이용한 중화권 SNS 서비스를 론칭함으로써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KBS World SNS 가입자는 2017년 말 기준 11,035,831명으로, 2016년 말 8,012,864명 대비 약 38%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방송사 SNS 중 최고수준입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017년 K-POP 월드 페스티벌'에서는 트위터 단독으로 SNS 공연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470만의 누적 시청 수치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트위터 코리아와의 콜라보 프로젝트로 'SNS 최고 인기상'을 신설하고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해 관련 해시태그는 800만 건 이상의 경이적인 트윗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해외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한류의 지속 확산에 앞장서 온 '2017 K-POP 월드 페스티벌 인 창원'은 올해로 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행사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인 72개국, 88개 지역에서의 오디션 참가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13개국 대표팀 67명과 함께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의 라인업으로 구성하여 화려한 공연을 연출하였습니다. 월드사업부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인 예능 아이돌 프로그램 〈K-RUSH〉 시즌 1, 2는 한류 아이돌스타가 한국의 명소를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류 팬들의 한국 문화 퀴즈 경연대회 〈퀴즈 온 코리아〉는 6회째를 맞이하며 23개국 공관 개최, 약 1500명의 예선 참여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계와 함께 KBS World Radio

KBS World Radio는 고품격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공외교 채널로서 공적책무 역할을 확대해왔습니다. 관광 프로그램 〈여행가고 싶다〉의 정규 편성과 영어 방송 확대 개편(기존 2시간 → 5시간 30분)을 통해 〈박정현의 원 파인 데이〉, 〈K-POP Connection 시즌 2〉, 〈KOREA 24〉, 〈Weekend Playlist〉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한류 저변 확산 및 다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다국어 한국어 강좌 모바일 서비스', 'KBS World Radio 인터넷 서비스 개시 20주년 홍보 이벤트' 등 인터넷과 모바일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해외 청취자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고 글로벌 KBS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국제협력

KBS는 2017년 회장사인 ABU(아태방송연맹)를 중심으로 주요 방송국제기구와 BBC, RAI, NHK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사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국제 공동제작 사업과 콘텐츠 교류협력을 주도하고 저개발국가 콘텐츠 지원을 통해 KBS의 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또,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금상을 포함해 세계적 권위의 국제상에서 다수의 수상작을 냄으로써 KBS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ABU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KBS는 2017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ABU 총회를 회장사로서 주재하며, 중국 문화교류 총 책임자인 류옌둥 부총리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교착 상태에 빠진 한중 방송교류의 물꼬를 트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 NHK, 베트남 VTV 등 ABU 핵심 회원사 수장과 EBU 유럽방송연맹 등 국제연맹 회장과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과 세계 최초 지상파 UHD를 홍보해 ABU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한류 확산과 KBS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부탄,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등 저개발 국가에 KBS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18년 APEC 개최국 파푸아뉴기니와 방송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영국 BBC, 이탈리아 RAI, 독일 ZDF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사들과의 협력관계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상 수상을 통한 KBS의 국제 경쟁력 제고

KBS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24개의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상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출품을 통해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5개 부문을 포함하여 '휴스턴 국제영화제', '아시안 TV어워즈' 등 다수의 시상식에서 수상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KBS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제 공동제작과 콘텐츠 교류 협력 확대

국제 공동제작과 콘텐츠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KBS 영향력 강화와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힘썼습니다. 한국-핀란드 국제공동제작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하키 드림즈, 기적의 1승을 향해〉를 비롯해, ABU 국제공동제작 〈CARE 7〉을 기획 · 주도하여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10여 편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공유했습니다. 일본 NHK, 타이완 PTS와 함께하는 국제 공동제작 〈아시안 피치〉에서는 아시아 지역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여 아시아 지역 방송 발전에 기여하고 다문화 콘텐츠를 국내외 시청자에게 제공했습니다.

해외 방송 교류 협력 강화

해외 주요 방송사와 여러 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방송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인적 교류까지 방송 전 분야에 걸쳐 협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KBS-NHK 방송협력회의'에서는 UHD 방송, 4K 프로그램 제작, KBS 아나운서 한국어 방송언어 연수 등 방송 전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냈고,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협력하여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우정 슈퍼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터키 TRT, 미국 VOA, 아태방송개발기구(AIBD), 인도 등과 콘텐츠, 전문가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여 폭넓은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수신료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공공복지의 증진과 민주적 여론형성 그리고 방송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등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공영방송으로 출범한 지 44주년인 2017년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소명을 되새기면서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중심 미디어로 거듭나고자 구성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해였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기를 이어갔으며, ABU 회장사 역할 수행 등 KBS 콘텐츠와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주도적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국내 방송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문화수출을 통한 국내 여타 산업의 해외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ABU상, 아시안 TV어워드 등에서 24개의 국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신료는 고품질 방송 서비스와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쓰입니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KBS 1 · 2TV, 1 · 2라디오와 1 · 2FM 등의 기본 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국제방송 KBS World TV와 라디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소리 방송', 남북 화합과 교류 채널 '한민족방송' 등의 공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또한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의 난시청을 해소하고 재난 · 재해 주관방송사로서 국가적 재난 ·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도 쓰입니다. KBS 수신료의 일부는 EBS에 직접 지원되고 EBS TV와 라디오의 송신도 KBS가 무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방송 등 새로운 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매체 · 다채널, 디지털 ·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서비스와 유료 · 상업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보편적 공익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재난재해 방송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9월의 경주, 11월의 포항 지진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KBS는 KBS통합디지털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UHD 방송시대에 걸맞은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 수행과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제공은 물론, 세계 최초로 도입된 UHD TV 방송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나 텔레비전수상기를 넘어 다양한 기기에서 고품격 콘텐츠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보다 확장하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 확대에 따른 적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공영방송 KBS는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보다 확장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현실로 인해서 시청자 복지, 한류의 지속 성장, 고품격 콘텐츠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효율화와 비용 절감 그리고 신규 수입원 창출의 노력 등을 통해 건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수신료 관련 통계 자료 (2017년 말 기준)

1. 수신료 수입현황
   1) 수신료 수입액 : 6,462억 원
   2) 수신료 순수입 : 5,843억 원, 위탁징수수수료 439억 원, EBS 지원금 180억 원
   ※ 순수입 기준으로 맞춤, 억 원 단위 단수차이 있음

2. TV수상기 등록현황
   1) 총 등록대수 : 24,584,675대
   2) 가정용 : 21,188,857대, 일반용 3,395,818대

3. 수신료 면제현황
   1) 총 면제대수 : 2,453,955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46,310대, 시청각장애인 207,006대, 난시청 276,247대, 전기 월 50kwh 미만 세대 1,346,171대, 국가유공자 72,309대, 기타 5,912대

경영

2017년 KBS는 '경영 혁신으로 재도약'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전사적 경영 비전 및 정책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통해 조직 안정화에 힘썼습니다.

전사적 정책 공유 및 조직 안정화

올해는 공사가 당면한 위기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타개하고자 노력한 해였습니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워크숍 진행방식을 개선하여 경영진과 주니어 사원들이 함께한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본사와 지역을 순회하며 경영비전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당면한 경영상황의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 중인 혁신 전략의 공유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조직이 지향하는 비전을 구성원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작년 조직개편 이후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후속작업을 마련하여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현안과 관련한 사항 중 선거방송기획단, 방송문화사업국(일부 지역국) 등 필요시 프로젝트팀을 신설하여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조직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해였습니다.

신규사원 108명 채용 진행

기존 블라인드 채용 방법으로 108명의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으나 퇴직자 대비 인력충원이 미흡했습니다. 경력직 채용에서는 경력인정 범위 확대 및 직무세분화(디지털, 모바일 분야에서 UI · UX, 디지털 광고 등)의 시도가 의미 있었습니다.

직무 중심의 인력운영에 따른 한계

직종 중심에서 이뤄지던 인력배치를 '직무' 중심의 목표아래 소위 '잡포스팅'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제 결과에서 많은 문제점(임의적 인력배치, 기존 직종위주 발령 유지, 직원의 근로의지 퇴보, 인사절차의 중복 등)이 야기되어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미흡으로 부진기관 지정 위기

2017년 사장 및 임직원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이 미흡하여 평가점수 70점을 받았습니다. 부진기관 지정 한계점수를 받아 부진기관 지정은 모면하였으나 관련 교육지침 마련과 교육 참여 강제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KBS 정상화를 위한 제작거부 및 총파업

노동관련 부문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에 반발하며 KBS 정상화를 향한 구성원들의 열망이 표출됐습니다. KBS 구성원들의 저항은 기자협회(08.28.)와 PD협회(08.30)의 제작거부를 시작으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총파업(09.04.)과 KBS노동조합의 총파업(09.07.)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듬해 1월까지 진행된 파업은 결국 KBS이사회의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01.22)로 이어졌고, 공영방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제작거부 및 파업은 KBS 역사상 최장기간인 149일간(2017.08.28.~2018.01.23.) 지속됐으며, 해당 기간 연인원 85,541명이 참여해 '공정방송'에 대한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서비스

KBS의 주인은 시청자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서비스와 사회공헌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감동으로 전했습니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공영방송의 투명성 제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청자 대표 기구인 '시청자위원회'를 매월 개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 146건의 의견을 전달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상담실'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전화, ARS, 인터넷, 우편, FAX, 방문 등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합니다. 시청자상담실은 총 40만 9,275건의 시청자 의견을 접수 · 처리하였고 시청자의 주요 의견을 사내외에 공유해 프로그램 제작 및 공사 운영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충처리인 제도'로 총 58건의 시청자 고충 사항을 처리해 시청자 권익을 적극 보호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 제도'로 연간 28건의 정보 청구를 원만히 처리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했고 KBS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시청자 평가 ·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인 〈TV비평 시청자데스크〉는 시청자와 제작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특히 매월 셋째 주 '뉴스비평' 코너를 통해 〈KBS 뉴스 9〉를 비평함으로서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은 26분 이상물, 15~25분물, 15분 이내 등 다양한 분량의 작품 108편을 총 51회에 걸쳐 방송했습니다. 이 중 83편(전체 방송 작품의 76.9%)은 지역 작품을 선정 및 방송해 지역 시청자 참여 활성화와 지역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 수행

열린 문화 공간인 '시청자광장'을 통해 총 59회의 전시와 17회의 방송 녹화 · 행사 기획가 제공됐고, 방송문화 체험의 장인 'KBS온'은 14만 148명의 관람객에게 견학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생, 미디어전공자 대상 방송체험 미디어 교육(57회/2,259명)과 외국인 초청견학(7회/151명) 등 시청자 중심 체험 행사를 연중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밖에 5곳의 '포토존'을 본관 앞에 설치 · 운영해 KBS 프로그램 홍보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KBS 제28기 시청자위원

위원장	박정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회장
부위원장	박홍일	디지털시청 100%재단 이사장
위원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서범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윤흥식	KBS 사우회 이사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대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총괄 전무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 교수

사회공헌활동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습니다. KBS 본연의 책무인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 송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는 시청자 감동을 실천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

올해로 6회 째를 맞는 대한민국 최고 민관 합동 행사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을 통해 총 155개의 훈장과 포상이 전달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제공하는 'KBS 김장 나눔 대축제'도 진행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약자 배려를 위한 생명나눔(헌혈) 특집다큐 '400cc의 기적',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도 진행해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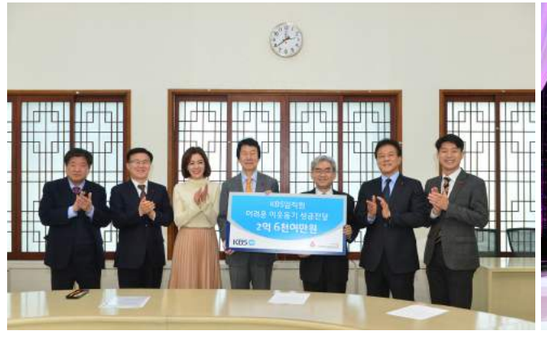
KBS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KBS 행복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총 51쌍(다문화가정 33쌍, 북한이탈주민 9쌍, 소외계층 9쌍)이 KBS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시대에 따른 사회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영방송 KBS

KBS 방송 출연자 등 연 인원 4백여 명이 참가한 'KBS 재능나눔봉사단'은 2017년 한 해 총 17회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고 4,500여 명이 봉사활동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KBS 작은 음악회' 역시 5차례에 걸쳐 진행돼 모두 1,200명에게 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5회 열어 공적책무를 다했습니다. KBS 강태원복지재단, 어린이재단 등과 공동으로 '매칭그랜트' 사업을 벌여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 총 3억 8,643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KBS 국악대경연'과 'KBS 한전 음악콩쿠르'를 열어 국악과 클래식 음악 활성화, 우수 인재 발굴에 힘썼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글로벌 한국인 재조명

KBS는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해외동포에게 시상하는 '제19회 KBS 해외동포상'을 이어갔습니다. 5명의 자랑스러운 해외동포에 대한 시상을 통해 세계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한국인을 재조명했습니다. 또한, 750만 해외동포를 포함한 전 세계 한민족의 연결고리로서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튼튼히 했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17 연차보고서

일반
현황

이사회

KBS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사회는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 운영 계획, 예산과 결산, 공사의 경영평가와 공표, 사장과 감사의 임명 제청, 부사장 임명 동의, 지역방송국의 설치와 폐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정관의 변경 등 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합니다. 제10기 이사회는 2015년 9월 1일 출범하여 활동 중입니다.

※ 2017년 12월 1일 기준

이인호 이사장
- 前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前 주 핀란드 · 러시아 대사
- 前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전영일 이사
- 現 한국노동복지센터 상임이사
- 現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이사장
- 前 KBS 경영평가위원

권태선 이사
- 現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前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 前 한겨레신문 편집인

변석찬 이사
- 前 KBS 비즈니스 고문
- 前 KBS 비즈니스 감사
- 前 KBS 라디오센터장

조우석 이사
- 現 문화평론가
- 前 중앙일보 편집국 문화전문기자
- 前 문화일보 편집국 문화부장

이원일 이사
- 現 법무법인(유한)바른 대표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 前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용환 이사
- 現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現 인권법학회 회장
- 現 (재)진실의 힘, (사)제주올레 이사

김서중 이사
- 現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現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前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차기환 이사
- 現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 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주영 이사
- 現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강규형 이사
- 現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위원
- 前 KBS교향악단 운영위원

집행기관

KBS는 집행기관으로 사장 1인, 2인 이내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과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합니다. 집행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고대영 사장

전홍구 감사

조인석 부사장

이종옥 부사장

이선재 전략기획실장

김영국 방송본부장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

홍기섭 보도본부장

김진홍 제작본부장

김순기 제작기술본부장

이완성 시청자본부장

2017 재무 제표

손익계산서

(단위 : 억 원)

계정과목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감	증감율
Ⅰ. 매출액	14,326	14,866	-540	-4%
1. 사업수입	14,326	14,866	-540	-4%
(1) 방송사업수입	14,163	14,714	-551	-4%
수신료수입	6,462	6,333	129	2%
광고방송수입	3,666	4,207	-541	-13%
전파료수입	106	21	85	405%
국고금수입	134	126	8	6%
기타방송사업수입	3,795	4,027	-232	-6%
(2) 시청자사업수입	163	152	11	7%
국악단수입	5	3	2	67%
일반부대사업수입	158	149	9	6%
Ⅱ. 매출원가	11,793	12,501	-708	-6%
1. 사업비	11,793	12,501	-708	-6%
(1) 방송사업비	11,603	12,326	-723	-6%
방송제작비	9,434	10,091	-657	-7%
시설운영비	2,169	2,235	-66	-3%
(2) 시청자사업비	190	175	15	9%
교향국악악단운영비	58	55	3	5%
일반부대사업비	132	120	12	10%
Ⅲ. 사업총이익	2,533	2,365	168	7%
Ⅳ. 판매비와관리비	2,331	2,349	-18	-1%
1. 일반관리비	817	750	67	9%
2. 수신료징수비	839	828	11	1%
교육방송지원금	181	177	4	2%
위탁징수비	438	430	8	2%
기타 경비	220	221	-1	0%
3. 광고운영비	675	771	-96	-12%
광고수수료	513	589	-76	-13%
방송발전기금	105	121	-16	-13%
기타경비	57	61	-4	-7%
Ⅴ. 사업이익(손실)	202	16	186	1163%
Ⅵ. 사업외 수입	612	469	143	30%
일반사업외수입	521	339	182	54%
지분법이익	91	130	-39	-30%
Ⅶ. 사업외 비용	159	147	12	8%
일반사업외비용	127	127	0	0%
지분법손실	32	6	26	-
이자비용	0	14	-14	-100%
Ⅷ. 법인세비용차가전순이익(-순손실)	655	338	317	94%
Ⅸ. 법인세비용	91	90	1	1%
Ⅹ. 당기순이익(-순손실)	564	248	316	127%

재무상태표

〈 자 산 〉

(단위 : 억 원)

계정과목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증감
Ⅰ. 유동자산	3,585	2,919	666
1. 당좌자산	3,528	2,812	716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10	636	574
매출채권	1,678	2,027	-349
미수금	37	47	-10
미수수익	5	5	-
선급금	536	18	518
선급비용	11	12	-1
단기대여금	11	13	-2
유동이연법인세자산	40	54	-14
기타의 당좌자산	-	-	-
2. 재고자산	57	107	-50
제작품	32	80	-48
영화	4	9	-5
저장품	21	18	3
Ⅱ. 비유동자산	9,625	9,673	-48
1. 투자자산	3,464	3,593	-129
장기투자증권	436	561	-12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369	2,330	39
장기대여금	499	542	-43
기타투자자산	160	160	-
2. 유형자산	5,609	5,734	-125
토지	1,588	1,598	-10
건물	2,982	3,103	-121
구축물	249	277	-28
기계장치	660	678	-18
차량운반구	17	24	-7
기타의 유형자산	54	51	3
건설중인자산	59	3	56
3. 무형자산	12	12	-
개발비	6	5	1
기타의 무형자산	6	7	-1
4. 기타 비유동자산	540	334	206
보증금	164	161	3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189	143	46
장기미수금	101	7	94
장기선급비용	21	23	-2
장기선급금	65	-	65
자산총계	**13,210**	**12,592**	**618**

〈 부 채 〉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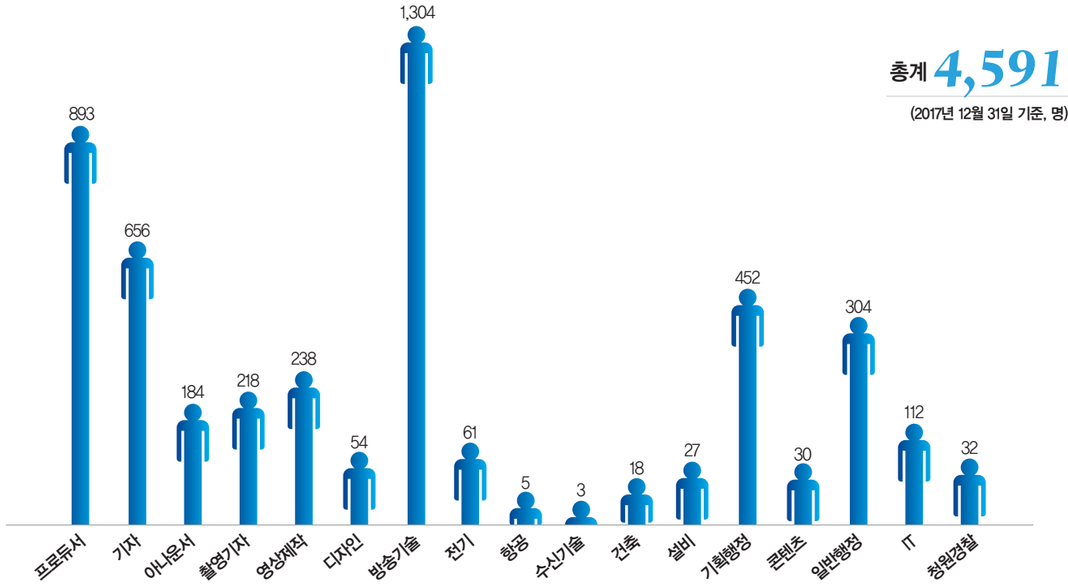
계정과목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증감
Ⅰ. 유동부채	1,938	1,908	30
단기차입금	-	-	-
매입채무	388	423	-35
미지급금	1,207	1,059	148
미지급비용	-	-	-
선수금	78	116	-38
예수금	114	137	-23
미지급법인세	72	95	-23
선수수익	72	58	14
기타의 유동부채	7	20	-13
Ⅱ. 비유동부채	4,116	3,965	151
장기예수보증금	-	1	-1
퇴직급여충당금	4,224	4,085	139
국민연금전환금	-14	-16	2
퇴직보험예치금	-94	-105	11
부채총계	**6,054**	**5,873**	**181**

〈 자 본 〉

(단위 : 억 원)

계정과목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증감
Ⅰ. 자본금	2,062	2,062	-
정부지분 자본금	2,062	2,062	-
Ⅱ. 자본조정	-13	-13	-
기타자본조정	-13	-13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	47	-107
지분법자본변동	2	6	-4
부의지분법자본변동	-31	-22	-9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63	-6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1	-	-31
Ⅳ. 이익잉여금	5,167	4,623	544
이익준비금	1,031	1,031	-
기업발전적립금	2,037	2,037	-
기업합리화적립금	90	90	-
사업확장적립금	1,445	1,217	228
"미처분이익잉여금 (Δ미처리결손금)"	564	248	316
자본총계	7,156	6,719	437
부채와 자본총계	**13,210**	**12,773**	**437**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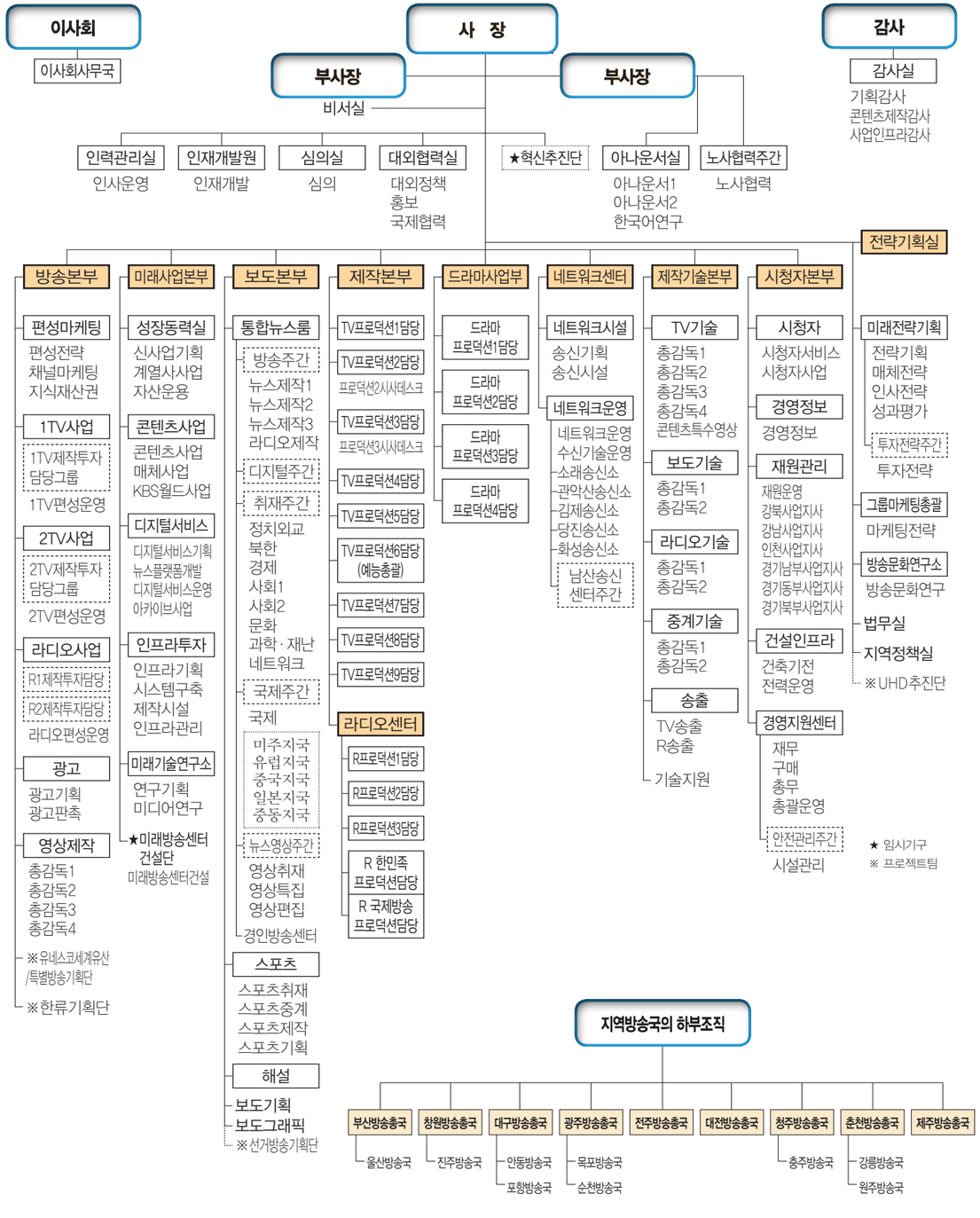
총계 **4,591**

(2017년 12월 31일 기준, 명)

※ 집행기관 및 연말퇴직자 제외, 방송저널리스트 직류는 직종으로 분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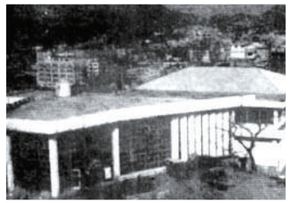
(2017년 12월 31일 기준)



KBS 역사

1926 사단법인 경성방송국 설립
1927 라디오 방송 개시(JODK)

1947 ITU에서 한국에 호출 부호 'HL' 할당
1948 국영 서울중앙방송국 발족



1961 서울 TV방송국 개국(KBS TV)

197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
한국방송공사 초대 홍경모 사장 취임
1979 최세경 사장 취임, FM 방송 실시

1980 2TV, 2라디오 방송 개시
이원홍 사장 취임, 컬러TV 방송 시작
1981 3TV 및 교육 FM 방송 개시
컬러TV 시청료 책정
(월 2,500원, 흑백TV 800원)
1983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85 박현태 사장 취임
음성다중방송 실시
1986 정구호 사장 취임
서울 아시안 게임 주관방송
1988 서울 올림픽 주관방송
서영훈 사장 취임

1990 서기원 사장 취임
KBS 방송강령 제정
3TV 및 교육 FM 교육부 이관
1993 홍두표 사장 취임
1994 수신료 징수 제도 개선, 1TV 광고 폐지
1995 인터넷 방송 개시
1996 위성 시험 방송 개시
1997 제34차 ABU 서울총회 개최
1998 박권상 사장 취임

2000 3라디오 사랑의소리 방송 개국
2001 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
2002 한 · 일 월드컵 공식 방송, 부산 아시안 게임 주관방송
KBS KOREA, KBS SKY SPORTS, KBS SKY DRAMA 개국
2003 정연주 사장 취임,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개국, 1라디오, 뉴스 · 시사 전문 채널로 새 출범, KBS 윤리강령 제정
2004 5대 광역시 DTV 본방송 실시
팀제 시행, 9개 총국 9개 지역국으로 지역국 기능 조정
2005 APEC 2005 KOREA 주관방송 실시
지상파 DMB 개국 · TV 낮 방송 실시
2006 MMS 시험 방송 실시
KBS JOY 개국 · IPTV 시험 방송 실시
2007 지상파 DMB 전국방송 실시,
세계공영방송총회 개최
2008 이병순 사장 취임
2009 김인규 사장 취임
2010 경인방송센터 개국 · 서울 G20 정상회의 주관방송

2011
- 세계공영TV(INPUT) 서울총회
-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관방송
- 일본 도쿄, 〈뮤직뱅크〉 첫 월드투어
- 방송사 최초 장애인 앵커 선발
- UN 가입 20주년 뉴욕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 김인규 사장, ABU 제 13대 회장 취임
- KBS TV 개국 50주년

2012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관방송
- KBS Kids 개국
- 여수 세계박람회 주관방송
- 종일방송 실시
- 제49차 ABU 서울총회 개최
- 길환영 사장 취임
- 언론사 최초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
-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 디지털 방송 시대 개막

2013
- KBS W 개국
- 방송개시 86주년, 공사창립 40주년
- 반프 TV 페스티벌 등 국제상 다수 수상
- KBS World 개국 10주년
- 수신료 조정안 이사회 의결
- 국제방송 개국 60주년

2014
- 조대현 사장 취임
- 〈색, 네 개의 욕망〉, 3대 국제상 '반프상' 대상 수상
- 소치동계올림픽, 브라질월드컵 등 중계방송 시청률 1위
- 교황 방한 124시간 전 세계 생중계
- 조대현 사장, ABU 제15대 회장 취임
- 세계 최초 UHD 라이브 중계방송 성공
- 수신료 조정안 국회 상정

2015
- 고대영 사장 취임
- 〈시대의 작창 판소리〉 반프 최우수작품상, 방통위 대상 수상
-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광복70년 국민 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시행
- KBS 미션 비전 선포

2016
- 조직개편 '1실 6본부 1사업부 2센터'
- KBS-KDB 한류콘텐츠 펀드 출범
- '몬스터 유니온' 설립
- 미래방송센터 건립안 이사회 의결
- 고대영 사장, ABU 제15대 회장 취임
- 지상파 UHD 방송사업 허가 방통위 의결

2017
- KBS HD급 고화질 DMB 서비스 시작
-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실시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베를린 특별전 개최
-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
- KBS UHD 가이드라인 발간